



LG유플러스-참약사,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맞손

LG유플러스가 약사 맞춤형 플랫폼 기업인 ‘참약사’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LG유플러스 권용현 CSO(원장)와 참약사 김병주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종근당 “첨단바이오약품 개발로 글로벌 기업 도약”

창립 82주년을 맞은 종근당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종근당은 지난 4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장한 회장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종근당



DGB금융그룹, 2기 파랑새어린이합창단 발대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대구가족센터협회, 한국클래식음악교수협회와 함께 ‘제2기 DGB파랑새어린이합창단 발대식’ 및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왼쪽 첫 번째)과 윤준혁 대구가족센터협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합창단원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롯데복지재단

독거노인 2500명에 생필품 전달

롯데복지재단은 8일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3년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 행사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롯데 플레저박스’를 전달했다. 전국 250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될 플레저박스에는 쌀, 레토르트식품, 견과류, 의약품 등 19종의 생활 필수품이 담겼다.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은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미혼모, 저소득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 품목을 전달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CC, 가정의 달 맞아 도서 360권 기부

KCC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정면 작은도서관에 500만원 상당의 도서 360권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소정면 이규인 면장, KCC 세종공장 윤석현 공장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한식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경영권을 위한 전략 ‘프랜차이즈 M&A’



이 상 현

창업 칼럼

최근 많은 브랜드들이M&A시장에 나와 활발한 거래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외국계 유명브랜드부터 중소형 국내 브랜드까지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손바뀜이 예상된다. 그렇다면M&A를 실시하는 구체적 동기는 무엇인가? 첫째, 신속한 신사업 진출을 위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동력이 우수하며 자사 브랜드에 대한 독립적 유통의 헤게모니를 가질수 있는 장점에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나 신사업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 사업적 시너지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M&A는 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기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행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회사의 경우 같은 외식업 중 상품이나 유통의 호환성이나 표적고객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사업이나 브랜드라면 적극적 M&A를 시도할 수 있다. 셋째, 규모의 경제적 성장이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유사 브랜드 인수는 관련한 유통규모의 양적 성장으로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넷째, 사업적 위험을 분산시킬수 있다. 보통의 기업들이 인수합병의 시도는 유사한 시너지가 가능한 기업이나 업종에 대한 관심에 먼저 시

작한다 하지만 전반적 관여도가 다른 업종의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위험분산도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M&A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산업별로 경기 사이클과 서비스 상품의 회전주기의 변화로 성장동력적 한계를 겪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전혀 다른 이종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사업적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함으로써 위험적 분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신기술을 취득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가치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기술에 대한 요구와 답대일 것이다. 외식업 관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의 차별적 제조공정이나 맛에 대한 전략적 고도화를 이룰수 있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에 대한 확보

가 용이하다. 신규사업에 대한 진입이 결정되었다고 관련한 인재를 영입하여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단점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M&A를 통한 조직인수다. 일반적으로IPO(기업공개)를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에서는 50%를 초과한 지분률을 확보하여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상장사의 경우는 20~30% 수준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M&A는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주인만큼 그들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안정된 지원체계의 지속성들을 점검하는것이 기본임을 명심하기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SKT, 26년 연속 1위… 최장 기록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 최다 수상 SKB 등 패밀리사 1위 겹경사

SK텔레콤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SK텔레콤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 2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NCSI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국내 전체 산업군 통틀어 SKT가

유일하다. 또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SK ICT 패밀리사들이 각 부문 1위를 차지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2011년 이후 13년 연속으로 IPTV와 초고속인터넷 2개 부문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1위에 선정됐다. SK텔링크는 국제전화 서비스업 부문에서 최장 수상 기록을 경신하며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제주항공, LCC 부문 2년 연속 1위

2018년 이후 네번째 수상 고객 인지가치 등 고평가 제주항공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 조사(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서LCC부문 2년연속 1위로 선정됐다. 8일 제주항공은 NCSI 수상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저비용항공(LCC) 부문의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네 번째 1위 수상”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중 고객 인지가치, 고객 기대수준과 고객 인지품질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객 인지가치 수준은 업계 최고수준으로 중·단거리 노선에 대한 탄력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현대車, ‘아반떼 N’ 상해 서킷 달린다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정

현대자동차가 8일 중국 상해 국제 서킷에서 ‘2023 TCR 차이나 챔피언십’ 출정식을 열고, 고성능 경주차 ‘엘란트라 N TCR(국내명 아반떼N TCR)’ 8대를 대회에 출전시킨다. 이번 출정식은 중국 고객이 N브랜드의 고성능 차량을 주행하며 상품성을 체험하는 이벤트 ‘트랙데이(Track Day)’와 연계해 마련됐다.

TCR 차이나 챔피언십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TCR 월드 투어’처럼 제조사의 직접 출전은 금지하고,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이다. 대회에는 마틴 카오, 앤디 안, 레이니 해, 장첸둥, 양시아오 웨이 등 중국 유명 프로 드라이버들이 속한 ‘현대N’과 ‘Z. 스피드N’ 등 총2개 팀이 참가한다. /양성운 기자 ysw@

SK가스, 어린이 교통환경 개선 앞장

SK가스(株)가 올해도 친환경 도로환경 조성과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올해에도 ‘멈춤 캠페인’을 함께한다. SK가스는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줄이고, 운전

자 인식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 안전을 지키고자 2021년부터 3년째 꾸준히 ‘멈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멈춤 캠페인’은 ‘운전자 멈춤, 어린이 멈춤, 미세먼지 멈춤’이라는 3가지 ‘멈춤’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인사

- ◆**기초과학연구원(IBS)** ◇본부장 △경영지원 한석훈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체육국 국제체육과장 명수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김진희 △국립중앙극장(과장직위) 조현나
- ◆**IBK연금보험** ◇신규 임원 선임 △상무 김미숙 △상무 신선준 ◇신규 부서장 선임 △부장 배선영(퇴직연금기획부장) △부장 윤형기(IT개발부장)
- ◆**월요신문** △편집국장 김영
- ◆**덕성여대** △기획처장 강남희

부음

▲박점호씨 별세, 김진식(보은군 산림

녹지과장)씨 모친상=8일 오전, 보은농협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043-543-3360 ▲박간란씨 별세, 송인현(충북 괴산군수)·삼한·길현·금현·경자·지연씨모친상=8일 오전, 괴산성모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10일 오전. 043-833-4411 ▲김길광씨 별세, 김후동(BNK경남은행 울산시청지점 지점장)씨 부친상=8일 오전, 울산영락원 100호, 발인 10일 오전. 052-272-1111 ▲김종문씨 별세, 손태승(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씨 장인상, 김연수(영주가톨릭병원 이사장)·민수·연하씨 부친상, 장혜란·최진경씨 시부상, 김상현씨 조부상=7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0일 오전. 02-2258-5940

/이세경 기자